

좋은 책 고르기와 출판인 의식성향

「도서목록개발기초연구」 「출판업계종사자의식조사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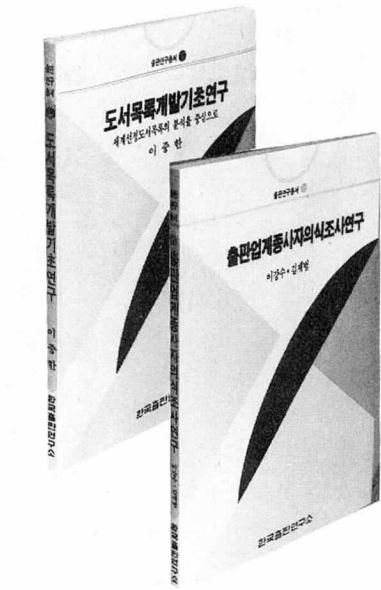
한국출판연구소(소장 김경희)가 발간하고 있는 '출판연구총서'의 올해 첫 연구결과로 「도서목록기초연구」(이강수)와 「출판업계 종사자의식조사연구」(이강수, 김재범)가 묶여 나왔다. '87년 「청소년 독서환경실태 및 독서 교육에 관한 연구」(유재천)를 첫권으로 시작한 이 시리즈는 작년말까지 모두 아홉권을 간행했는데 올해안에 「출판관계법령 및 제도개선연구」(고덕환·팽원순·한승현) 「한국도서총목록개발기초작업」(윤병태) 「ISBN·POS제도 운영방안연구」(이두영) 등을 펴낼 예정이다.

세계의 권위있는 추천도서목록을 살피고 그 선택관점을 검토분석한 「도서목록개발기초연구」와 편집·영업인의 의식조사를 통해 출판의 사회적 기능을 가능한 「출판업계종사자의식조사연구」는 전자가 세계적 추천도서목록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상황에 맞는 모범적 도서목록의 개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후자는 지식의 생산과 확산의 메커니즘을 담당하고 있는 출판인들의 의식을 사회심리적 차원에서 복합적 연구조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각각 그 연구의 의의가 깊다.

우리문화에 맞는 도서목록개발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최근들어 관심이 고조된 도서목록의 필요성은 외국의 추천목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세계선정도서목록의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부제의 「도서목록개발기초연구」는 바로 '좋은 책 고르기'의 안목과 그를 뒷받침할 '좋은 책 만들기'에 필요한 도서목록을 좀더 넓고 깊게 개발하자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상당한 평가를 얻는 세계적 추천도서목록에 대해 주제적 비판의 입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이 책에 수록된 24개의 추천목록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왔던 우리의 출판현실과 외국 도서목록에 나타난 광범하고 다양한 독서관심 폭에 비해 빈약한 우리 독서상황에 대한 반성을 자극하고 있다.

이 연구서에서 인용한 목록은 크게 교양, 세계문학, 사상, 청소년 등의 덩어리로 나뉠 수 있는데, 우선 일반인들의 교양교육을 목적으로 한 교양도서목록으로 브리태니커의 「그레이트 북스」 컬럼비아대학의 「그레이트 북 고전 54선」 스탠퍼드대학의 「교양도서」를 든다. 「그레이트 북스」는 전54권에 담긴 74명 저작자의 433개 저작물을 10년에 나눠 읽는 순서까지 친절히 안내한다. 한 저작자 한 책도 여러해에



연차적으로 읽음으로써 종합적 시각의 균형과 이해증진을 꾀할 수 있다는 것. 컬럼비아대학의 교양도서는 미국대학 교양교육의 가장 최근 경향을 반영한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고 스탠퍼드대학의 교양도서는 이른바 소수민족, 유색인종의 문화사상을 이해하려는 점이 강조되어 두드러진다.

세계문학에 대한 도서목록 작업은 꽤 많이 진행돼와서 이 책에 인용한 것만도 10가지가 넘는다. 판본상태와 번역 수준에 대한 냉엄한 기준을 보여준 헤르만 헤세의 「세계문학문고」는 실제로 읽지 않으면서도 늘 적어가지고 다니는 명작이나, 좋은 번역이 있을 수 없는 저서는 단호히 배버린 것이 특징적이다. "읽는 즐거움"을 강조한 서머셋 모옴의 문학목록에는 자신의 문학취향까지 나타나 있는데, 소설 읽기의 가치를 간결명료하게 설명하면서 꼽은 「10대소설」(「톼 토스」(필딩) 「오만과 편견」(오스틴) 「적과 흑」(스탕달)) 등에 대한 짙은 견해는 그의 지적 정서적 해안을 보여준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동구와 아프리카, 남미문학 도서목록은 영·미·유럽 일색의 도서선정에 대한 반성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어 다른 목록들과 비교된다. 여기서 저자는 10여개에 이르는 국내 세계문학전집 목록을 예시하고 3~5개 이상 중복된 판본들이 모두 영·미·유럽의 문학임을 실증해보인다.

한편 20세기 사상적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도서목록으로는 케네드 톰슨의 「20세기 국제정치사상의 대가들」이 국제체계의 갈등을 18인의 사상가를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BBC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선택한 8명의 사상가(가다

머·데리다·푸코·쿤·롤즈·하버마스·알튀세·스트로스)와 아날학파는 빠르게 전환하는 현대사상의 흐름을 포착하고 있어 시사적이다. 여기서 우리의 수용자세에 대해 "너무나 개별적이어서 사상경향과 조류의 연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저자의 지적은 적절하다.

청소년을 위한 도서목록에 이르러서는 우리 현실과의 극심한 간격을 실감하게 되는데, 예컨대 '수줍어하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 '이민은 어린이를 위한 도서' '정신적 장애자나 지체부자유 어린이를 위한 도서' 등이 분류돼 있는 영·미도서관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저자는 특히 일본에 거의 종속돼 있는 국내 아동도서 목록의 상황을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경제에 영향미친 베스트셀러」나 「일생의 독서계획」 「장서론」 등 다양한 주제로 뽑아져나온 도서목록들은 그 세심한 작업이 곧 성숙한 책읽기의 디딤돌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지식생산 주체의 의식조사 결과

책의 생산을 맡은 주체자의 의식은 곧 한 나라 출판의 질에 반영된다고 보면 우리나라 출판인의 성향을 연구하는 작업은 보다 본질적이다. 「출판업계 종사자의식조사연구」에서는 출판종사자들의 직업의식과 계층적, 직업적 환경에 연구 초점을 두고 출판인의 문화적 게이 트키퍼로서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서에 의하면 편집인들의 학력은 대졸이상(75.3%)으로 높은 편이고, 소득수준은 40~60만원(41.9%) 60~80만원(21%)대가 높은 빈도를 보여 연령·경력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근무경력 2~5년미만(17.6%)이 많으며 편집인들의 전공은 어문계열(34.4%) 사회과학(17.7%) 인문(9.2%) 계열에 편중돼 있다. 타직종에 비해 전근비율이 높은 편인데, 20대(61.3%)와 30대(29%)의 여성(55.9%)이 대부분인 인적구성을 보이며 이들의 정치성향은 진보적(44.2%)으로 나타났다.

편집인들 대다수는 출판업계의 선진화가 미흡하다(66.7%)고 응답했는데, 주로 경영전반(50.3%) 전자출판, 뉴테크놀로지분야(45.2%)를 지적했으며 그 저해요인으로 출판업의 영세성(66.1%)을 꼽았다. 출판학에 대해서는 아직 미성숙하다(71.4%)는 의견이 많으며 편집직 자격증제도는 48.4%가 찬성하지만 그 제도의 시행에 대해선 시기상조(41.4%)라는 의견도 많았다.

편집인의 직업의식은 국민정신의 개발과 문화발전 이바지, 전문지식 습득 등 전문가적 인자를 많이 지니는데 그에 비해 보수는 70% 이상이 불만족스러워했다. 편집직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며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41.7%)이라는 요인을 들어 출판업의 영세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편집인들은 대체로 추천(56.5%)에 의해 입사했으며, 대부분(81.2%) 입사전 편집에 관심이 있었고 '이 직업에 계속 종사하겠다'(75.5%)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기획이나 편집방향은 사장 및 경영자(73.5%)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획정보는 편집위원·저자의 의견과 영업인의 서점수집정보, 신문 잡지 기사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인 조사결과는 편집인보다 또다른 특성을 보인다. 학력수준은 대졸(38.9%), 고졸이하(31.9%)로 편집인에 비해 낮은 편이며 소득수준은 40만원 미만과 100만원이상의 소득자가 편집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5년 이상의 경력자가 40.5%여서 상대적으로 편집인보다 경력이 많지만 타직종에 비해 전근율은 높은 편이다. 남자(77.3%)가 많은 영업인들의 정치성향은 진보집단이 많았던 편집인에 비해 중도집단(58.5%)이 많았다.

출판업계의 선진화는 역시 부정적(70%이상)인데 '전문영업인으로서의 처우개선 및 전문화'와 '유통구조 전산화 및 효율화'를 가장 미흡한 분야로 꼽았다. 대부분(75.4%)은 보람을 느끼는데 '문화사업에 종사한다는 긍지'(58.2%)를 이유로 들었다.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는데 그 영세성에 비해 90% 이상이 자사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추천에 의한 입사가 많고 대다수(62.9%)가 영업업무에 계속 종사하겠다고 응답했다. 영업정책 역시 사장 및 경영진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영업방침은 서점에서 수렴한 의견의 비중이 컸다. 영업활동은 상당히 자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사원간의 동료의식도 강한 것으로 보였다.

이 연구서는 출판인이 환경적 취약성 가운데서도 전문가의식이 강하고 일에 대한 긍지가 크지만 만성적 영세성에 시달리는 출판계가 사회의 게이트키퍼로서 존재하려면 국가의 선도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김지원 기자